



## 우리는 '동무' 13살 차이 사회주의 이론가와 실천가의 행복한 만남

급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한국 사회에서 13살은 적은 나이 차이가 아니다. 그 사이에는 단지 세대차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연과 흥터로 얼룩진 한국의 현대사가 있다. 《레즈를 위하여 - 새롭게 읽는 공산당 선언》(실천문학사 발행 이하 《레즈를 위하여》)의 공동저자 황광우 씨(46)와 장석준 씨(33)에게 시선이 머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1958년과 1971년생. 이들은 어떻게 공산당 선언을 주제로 한 책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

황광우 씨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30년을 넘게 보내오고 있다. 1970년에 민주화운동을 시작해, 1980년대에는 노동운동을, 1990년대에는 진보정당운동의 실천가로서 앞장선다. 더불어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1984),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1985), 《노동자의 사상》(1989) 등 정인이라는 필명으로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의 행동을 부추긴(?) 책을 쓰기도 했다. 반면 장석준 씨는 소련이 무너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사회학을 공부했다.

《세계를 바꾸는 파업》(김덕련 공저)를 쓰고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을 옮기는 등 《레즈를 위하여》에 소개된 대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더욱 성숙하도록 작은 힘을 보태며 살고 있다.'

“처음엔 황 위원장님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죠.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노숙자에 가깝다고 그러더군요.(웃음) 그러다 황 위원장님이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을 맡고 전 교육부장을 맡아 서로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여의도 당사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낭만적이고, 걱정적인 분이더군요.”

“낭만적이고 걱정적이라니요. 저처럼 현실적인 사람도 없는데... 석준 씨의 제일 좋은 점은 대낮부터 소주를 마시는 친구라는 점입니다. 역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려면 술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저는



황광우

“석준 씨의 제일 좋은 점은 대낮부터 소주를 마시는 친구라는 점입니다. 역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려면 술이 있어야 하지요.”



장석준

“황 위원장님이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을 맡고 전 교육 부장을 맡아 서로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여의도 당사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낭만적이고, 격정적인 분이더군요.”

논술을 술을 논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다만 석준 씨에게 가장 쉽게 느끼는 건 밤 11시면 집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셨으면 끝까지 마셔야 하는데 말이죠.”

남원의 민노당 중앙연수원에서 만난 이들은 3년 동안 <공산당 선언>의 이론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논점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황씨로서는 맑스주의에 대해 아카데미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장석준 동지’에게 이론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장씨는 맑스주의를 몸으로 옮긴 실천가가 들려주는 경험담을 들으며 실천과 이론 사이의 차이에 대한 고민을 차분히 이어갈 수 있었다.

사실 황씨는 장씨와 처음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과 같은 실천가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준비위, 한국노동당, 진보정당추진위 등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할 수가 없었다. 조직의 한 가운데에서 실천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을 장석준 씨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런 만남으로 인해 황광우 씨와 장석준 씨는 민노당 창당과 함께 시작한 민주노동당 정책이론지 <이론과 논쟁>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들과 젊은 세대들이 읽을 만한 쉬운 글을 신자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자칫 글이 통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은 장씨의 도움을 받았다. 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을 장씨가 정리하여 주었기 때문에 황씨는 좀더 편한 마음으로 대중적인 해설을 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책을 쓸 때 황 위원장님은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운동권 학생들이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 위원장님이 쓴 게 많았으니까요.”

누구보다 크게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소리쳐 얘기하던 황씨였다. 하지만 그의 외침과 상관없이 소련이라는 거대한 상징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회를 분석하고 노동자의 길을 여는데 여전히 맑스주의의 큰 틀이 유효한데 동지들은 흩어지고 세상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더 이상 맑스주의를 교조적으로 풀이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10년을 방황하고 난 후였다.

“예전에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걸려 책을 써냈는데 이번엔 꼬박 3년의 산고를 겪은 셈입니다. 평생 맑스를 연구하고 글을 쓴 폴 스위지가 나이 80이 넘어서도 <공산당 선언>은 낯선 문건이라 하였다는군요. 정말 선언은 간결하고 명쾌한 문건입니다만, 또 이렇게 심오한 문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0년은 더 실천해 보아야 명쾌하게 독해될 대목들이 선언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다. 당시 감옥에서 이 글을 읽은 단병호 위원장은 ‘동지가 풀이하고 있는 선언 해설, 잘 읽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유럽 한민족 연대 사무국장인 최정규 씨의 초청으로 함께 독일에 다녀올 수 있었다.



“독일에 함께 가보니 역시 석준 씨는 사회주의 정보통이더군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나라에 대하여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어찌구, 로자 룩셈부르크가 어디에서 죽었고, 독일 사민당, 녹색당이 어떻게 논쟁을 하고 있고..., 정말 독일에서 10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알고 있더라구요.”

“원래는 최정규 선생님이 황 위원장님 티켓만 보내왔어요. 제가 초청된 건 아니었죠. 그런데 황 위원장님이 혼자 여행하면 무슨 맛이냐며 제 여비를 마련해주시는 거예요. 참 낭만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제 말이 맞지요.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가서 들어보니 황 위원장님이 초청받은 대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대회였어요. 유럽 사회주의자들의 국제행사 개최연설을 한국인이 했다는 건 현지인들로서도 의외의 사건이었다고 하더군요. 민주노총의 투쟁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황 위원장님이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현황을 영어로 들려주었어요. 또 황위원장이 ‘투쟁’이라는 구호를 한국말로 따라 하도록 가르치기도 했구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흥분된 순간들이었습니다.”

《레즈를 위하여》 1부의 마지막 장은 광주항쟁 속에서 생명을 잃은 6명의 들불야학 동지들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장석준 씨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느낌은 오는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광주항쟁은 혁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광주

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광주항쟁을 혁명으로 확대시킨 면이 있죠. 단지 이전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이었다면 광주를 계기로 PD(민중민주계열)와 같은 혁명운동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광주의 들불이 되었던 박기순, 윤상원, 박용준, 김영철, 신영일, 박효선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순수한 청춘의 시절에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움이 더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기억함으로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황광우 씨가 경험한 것을 장석준 씨가 같은 질량으로 떠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장씨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부를 수는 있지만 황씨처럼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장씨가 가진 이론적인 새로움은 황씨가 장씨에게 의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환경, 반세계화, 인권, 노동 등 진보적인 가치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노련한 실천가와 신선한 이론가의 깊은 조우가 의미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좋은 사회는 다양한 의견의 충돌과 화합을 거쳐 이루어진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선배들의 역량이 더 많은 후배들을 불러모으는 사실을 황광우 씨와 장석준 씨의 소중한 인연에서 찾을 수 있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